

주간 묵상집

「솔로몬의 두 개의 프레임」 · 열왕기상 9:1-10 · 다함교회

한 주간 암송구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 2:5-7)

매일 본문을 소리 내어 읽고, 묵상 글을 천천히 따라간 뒤, 질문에 자기 언어로 답을 적어 보십시오.

날짜	본문 및 제목
월요일	왕상 9:1-3; 빌 2:5-7 「그리스도의 마음, 참된 프레임」
화요일	왕상 9:10; 삼상 16:7 「숫자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수요일	왕상 9:11; 롬 7:24-25 「명분 뒤에 숨은 나의 민낯」
목요일	왕상 9:12-14; 레 25:23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
금요일	왕상 9:6-9; 롬 12:1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
토요일	왕상 9:4-5; 시 51:10 「깨끗한 마음으로 다음 예배를 예비함」

월요일

열왕기상 9:1-3; 빌립보서 2:5-7

그리스도의 마음, 참된 프레임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룬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왕상 9:1-2)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 2:5)

성전과 왕궁이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적습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룬 때에." 인생의 정점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칭찬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만일"로 시작하는 조건과 경고입니다(4, 6절).

주일에 우리는 솔로몬이 붙들고 있던 두 개의 프레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숫자와 규모'의 프레임이요, 또 하나는 '명분 뒤의 이중성'이라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 안경과 같습니다. 붉은 렌즈를 끼면 세상이 온통 붉게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렌즈를 끼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어떤 렌즈로 하나님과 백성을 보고 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품다'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네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 사고의 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프레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붙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솔로몬의 프레임은 쌓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프레임은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배우고 닮아 가는 것, 그것이 예배이며 묵상의 목적입니다. 이번 한 주, 무엇을 더 이룰까를 묻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렌즈를 끼고 있는지부터 정직하게 살펴봅시다. 인생의 정점에 찾아오셔서 "만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분이 아니라, 정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입니다.

묵상 질문

- 오늘 하루, 나는 어떤 프레임(생각의 틀)으로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비교해 보십시오.
- 내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을 이룬 뒤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 이번 주 내 삶에서 '쌓는 프레임'을 '비우는 프레임'으로 바꾸어야 할 구체적인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의 기도

주님, 오늘 하루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제가 이룬 것을 바라보느라 정작 제 눈에 띄워진 낯은 렌즈를 보지 못했습니다. 쌓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신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열왕기상 9:10; 사무엘상 16:7

숫자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이십 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왕상 9:10)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삼상 16:7)

솔로몬의 시대는 숫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기브온의 일천 번제(왕상 3:4), 성전 봉헌 때 드린 소 이만 이천과 양 십 이만(8:63), 그리고 이십 년에 걸친 두 집의 건축(9:10). 숫자는 늘 설득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기 어렵고, 누구나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숫자는 가장 손쉽게 신앙의 증명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숫자의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 번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이라 하시며 삼만 이천 명을 삼백 명으로 줄이셨습니다(삿 7:2). 이스라엘이 자기 손이 자기를 구원했다고 자랑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말년에 인구를 조사하다가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삼하 24장). 백성의 수를 센 것 자체가 죄였던 것이 아니라, 숫자에서 안전을 찾으려 한 마음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다윗을 택하실 때부터 계산법이 달랐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차례로 지나갈 때 사무엘조차 용모와 키에 마음이 기울었지만,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헌금함 앞에서 부자들의 많은 헌금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을 가리키셨습니다(막 12:41-44). 세상은 액수를 세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세십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오늘 몇 명 왔나"를 먼저 묻고, 한 주를 돌아볼 때 "얼마나 했나"를 먼저 따집니다. 숫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기준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과 삶을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 어떤 저울을 쓰고 있습니까?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 봅시다.

묵상 질문

- 최근 나는 무엇을 '규모'나 '결과'로만 판단하려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 기드온의 삼백 명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무엇인가를 '줄이심'으로 일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오늘 한 사람을 숫자가 아닌 중심으로 바라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는 보이는 것으로 저 자신과 남을 재는 데 익숙합니다. 숫자에서 안전을 찾으려 했던 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부의 두 렵돈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열왕기상 9:11; 로마서 7:24-25

명분 뒤에 숨은 나의 민낯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으므로 솔로몬 왕이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나" (왕상 9:11)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24)

성전 건축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거룩한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금을 들여왔고, 그 값으로 갈릴리의 성읍 스무 곳을 이방 왕에게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언약의 땅이 건축 대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백향목은 성전에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이십 년 가운데 십삼 년은 자기 왕궁을 짓는 시간이었습니다(7:1).

이것이 명분의 무서움입니다. 명분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전은 실제로 지어졌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곳에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참된 명분 뒤에도 다른 동기가 함께 숨을 수 있습니다. 명분이 거룩할수록 그 뒤에 숨은 욕망은 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성전을 위해서"라는 말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괄호가 붙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이 잘되게 하소서"라는 문장 뒤에 괄호를 열어 보면, 사실은 "(내가 인정받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 "(내 자리를 위해서)"가 숨어 있습니다. 괄호 안의 글씨는 작아서 남들은 보지 못하고, 오래 쓰다 보면 나 자신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직하게 괄호를 여는 날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탄식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7:25)라고 노래합니다. 민낯을 감추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지만, 민낯을 드러낸 사람만이 은혜를 누립니다.

묵상 질문

- 나의 삶에서 신앙의 명분 뒤에 실제로는 다른 동기가 자리 잡고 있었던 영역은 어디입니까?

- 요즘 내가 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를 골라, 그 뒤에 숨은 괄호를 정직하게 적어 보십시오.
- 바울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왜 은혜의 출발점이 됩니까?

오늘의 기도

주님, 저의 이중성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말로 제 욕심을 덮어 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명분 뒤에 숨은 저의 민낯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곤고한 저를 건지신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요일

열왕기상 9:12-14; 레위기 25:23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왕상 9:12-13)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레 25:23)

솔로몬이 넘긴 갈릴리 성읍들을 본 히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그리고 그 땅에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확한 뜻은 분명하지 않으나 흔히 '아무 가치 없는 땅'이라는 조롱 섞인 이름으로 풀이됩니다. 성경 기자는 굳이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부끄러운 이름이 역사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땅은 부동산이 아니라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의 증표였고, 대대로 지켜야 할 기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을 기억합니다. 그는 포도원 한 뿔을 두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왕상 21:3)라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봇은 한 뿔을 지키려다 죽었고, 솔로몬은 스무 성읍을 금과 바꾸었습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세상은 그것을 더 가볍게 여깁니다. 솔로몬이 거래의 화폐로 쓴 땅을 히람은 쓸모없는 땅으로 취급했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반지를 급한 마음에 헐값에 넘기면, 받는 사람에게 그것은 그저 금붙이일 뿐입니다. 예배와 주일,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제를 편리를 위해 하나씩 거래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가불'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멀리받던 그 갈릴리 땅을 두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사 9:1)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마 4:15-17). 사람이 '가불'이라 부른 땅을 하나님은 큰 빛이 비치는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헐값에 넘긴 것까지 되찾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묵상 질문

- 내가 편리함이나 손해를 이유로 가볍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내 신앙의 어떤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 '가뭇'처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 열사받던 갈릴리를 빛의 땅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오늘 다시 맡겨 드려야 할 나의 '가뭇'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

신실하신 주님, 저와 맺으신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거래의 도구로 삼았던 저를 용서하시고, 손해가 있어도 신실하게 지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제가 헐값에 넘긴 것까지 되찾으시는 구속의 은혜를 붙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

열왕기상 9:6-9; 로마서 12:1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왕상 9:7-8)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봉헌식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둔 이 성전이라도 너희가 돌아서면 던져 버리겠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은 건물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성전은 하나님께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수백 년 뒤 바벨론의 불길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에는 실패했습니다. 성전은 칠 년 만에 완공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끝내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신들을 위해 산당을 지었습니다(11:1-8). 예배당은 세웠으나 삶은 무너졌습니다.

바울은 예배를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너희 몸을 ...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제물은 죽어서 드러졌지만, 우리는 살아서 드러집니다. 예배는 주일 한 시간, 예배당이라는 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월요일의 일터, 화요일의 가정, 금요일의 지갑까지,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베네딕트 수도회는 '기도하고 일하라'는 한 문장을 삶의 규칙처럼 붙들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와 노동의 자리가 둘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산 제물의 어려움은 자꾸 제단에서 기어 내려온다는 데 있습니다. 주일에는 제단 위에 올라가 있다가,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조용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산 제사는 단번의 결단이 아니라 날마다 다시 올라가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보다 먼저 자기 몸을 단번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히 10:10). 오늘 하루, 나의 몸과 시간과 언어로 드리는 산 제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봅시다.

묵상 질문

- 오늘 나의 일터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 주일의 나와 월요일의 나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 내가 제단에서 가장 자주 '기어 내려오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의 기도

주님, 오늘 저의 몸과 시간을 산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화려한 예배당보다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주님, 예배당 밖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제단에서 자꾸 내려오는 저를 붙드시고, 먼저 자신을 드리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일

열왕기상 9:4-5; 시편 51:10

깨끗한 마음으로 다음 예배를 예비함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왕상 9:4)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 51:10)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것은 더 큰 성전도, 더 많은 제물도 아니었습니다.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툼'은 흠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나뉘지 않은 마음, 한 방향으로 모인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온전했다니요. 우리는 다윗의 실패를 압니다. 밋세바와 우리아의 일, 인구조사의 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온전함은 흠 없음이 아니라 돌아옴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너졌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다'로 번역된 동사 '바라'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쓰는 말입니다. 깨끗한 마음은 내가 닦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시는 것입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흔들립니다. 가방 속에서도, 차 안에서도 이리저리 돌아갑니다. 그러나 멈추면 다시 북쪽을 가리킵니다. 좋은 나침반은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아니라 언제나 북쪽으로 돌아오는 나침반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영광을 모두 가졌으나 끝내 돌아오는 바늘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많이 흔들렸지만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신 유일한 왕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고, 그 순종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겔 36:26). 이번 한 주간의 묵상을 돌아보십시오. 렌즈, 숫자, 괄호, 가불, 제단.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흔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묵상 질문

- 이번 한 주간의 묵상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나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으려는' 신앙입니까, '돌아오는' 신앙입니까?
- 내일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한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오늘의 기도

주님, 이번 한 주간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힘으로 닦아서는 깨끗해질 수 없는 마음을 주님께
서 새로 지어 주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내일 다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정리

주일예배를 준비하며

한 주간 묵상 되새김

- 월요일 - 무엇을 보느냐보다, 무엇으로 보느냐가 먼저다.
- 화요일 - 하나님은 규모가 아니라 중심을 세신다.
- 수요일 - 명분의 괄호를 열고, 그 안의 민낯을 십자가 앞에 내놓으라.
- 목요일 - 언약은 거래의 화폐가 아니다. 나의 '가불'을 돌아보라.
- 금요일 - 건물은 무너져도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는 무너지지 않는다.
- 토요일 - 온전함은 흠 없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옴이다.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말씀으로 저의 낡은 프레임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숫자로 저를 증명하려던 마음과 명분 뒤에 숨었던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배워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